

박영숙 분임대 으뜸지기

지난 8월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동안 제주도에서 개최된 <2003 여성환경연대 전국연수회>에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었다. 2000년도에 전국각지에서 각자 위임받은 분임대 여성환경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은혜를 도로하러 동행귀임을 확인했던 지극한 감동과는 또 다른 감동을 경험했다.

연수회의 초반은 우리 이듬해의 집중미팅, 이야기 미팅, 그리고 공동미팅에서 누가 특별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50여명의 전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대회의 장을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지식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공감해주시는 힘이 되어주는 감지했다.

최근 세미콘 살리기, 친환경 지킴이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운동을 건 종교 지도자들의 '삼보일배' 행진이나 단식투쟁 그리고 수산조류의 출몰시기에 냉정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집행 등을 보면서 참담해 하고 있는 환경인들에게 이보다 땀방울과 함께 여성환경인들이 각자 전지지에서 환경자립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내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는 것 같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2003 제주 선언문>을 갖대론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여성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제주선언문은 ① 환경운동의 참여부상화 ② 여성단체의 환경운동 지평의 확대 ③ 주민과치의 관점에서 여성환경인의 정책적 주체행동 ④ 돌봄의 운동 강화로서 여성운동의 활성화 ⑤ 국내외 연대강화의 총론과 대기로 하는 지방자치체의 여성에 역할강화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2000년 제주선언 이후 여성환경운동의 활동패턴과 과제 모색을 하는 <집중미팅>에서는 환경운동의 현주소를 짚어 보는 여는 바탕에 이어 우리와 여성환경운동의 활동현황과 과제 그리고 세계여성환경운동의 흐름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작은주제로서 '환경단체의 여성활동' 그리고 여성단체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과 고민들이 현장감있게 제기되었다.

3박4일동안 평강과 리제모색을 위한 <이야기 미팅>에서는 여성환경운동가의 지성의 문제를 토론했다. 지난 3년간은 활발한 지역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여성환경운동은 전개되고 있으며 여성운동의 성공사례로서의 리제모색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며 영감을 주고이 이어갔다.

두번째는 <주제별 집중미팅>에서는 환경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 문제와 리더십을 갖는 보임주제가 있었고 이번 연수회의 특별코너였던 '환경, 여성, 평화'라는 주제의 <공동미팅>에서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는 전쟁문제와 환경적, 여성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지상감 같이 있게 보아라 북 개화도 의미가 있었다.

제주선언문에서 평가하고 있는 사실들이 33이라는 것지 않은 기간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일 우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라는 점에서 장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평강리었다. 특히 국내외의 연대망 강화는 ①

장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외환이로 활동하던 여성한강인들의 공동대행방식의
2분방이 형성되어 다른 학생과 긴밀하게 연결을 위한 지역한강포럼이 구성되었고 참예
36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 학생회 대표로서 대응하는 주민자치의 주역으로서의
정리세력화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지방을 하게 하였다. 2004년도 총선 대비
여성의 참여문제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새로운 문제를 부각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여성한강포럼의 결성과 WSSD 여성한강기초회 활동을 통해
여성한강인으로서의 교육적 주도권을 확고하게 다졌고 앞으로의 국내 여성한강
운동의 영향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등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또다시 통해
공동노동착수 있는 하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한강지역이} 관심을 받은 지역사회에서 한강운동은 이끄러가는데
필요한 지도력이 문제였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중앙기구의 유인으로 도모하였는데
지도력으로서의 지도력주체는 역시 국가의 실권적인 행위를 통해서 추진되었을 것으로
지나치게 서로 싸우는 것으로 남을 배척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기억한다. 그래서 제언한
방안이 소비재들로 구성된 연수장가를 마련해서 2분방에 응징으로 한강을 것이었다.

여성한강연대인 IPPPI로 창립한 이래 해마다 갖는 연수회에서 한강인들이
머무르면서 이번 가을으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체계화하게 하는 문화프로젝트의 소중함을
평생에서 체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는 '나눔의 그물망' '공동체 노래 미당' '보통
집의 그물망' '상상속의 그물망' 등이 주제로 한강인들의 참여성을 자극하는데 상당한
간이 친교를 보다 도모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게 하려 하였다.
한강연대들은 제주로에서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정리시키는 것으로써 유익
하게 지난 3년간에 이르러서 못한 <여성한강기금 조성>을 적극추진키로 하는
것이다.

이번 연수회에서 갖는 소규모 제주해녀들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의 지혜를
통해 여성한강의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여성한강연대로서의 지도력의 문제
그리고 연대라는 여성적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등을 배운 것이다. 3박4일간의 일정을 최후로 정리하는 단계가 되
제주해녀이야기 그리고 제주에서 진행 프로젝트는 한국여성재단의 '그녀의
여행, 그날부터' 이라는 여성한강운동의 여가 재충전을 위한 지원프로젝트
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제주해녀들이 일주일에 한차례씩 가족의 삶과 함께하며 일상 중은 자신에게로
가깝게 참여프로의 노동관계에서의 활동에 임하는 주역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연대의 힘에서 비롯된 후배라는 의식을 제주도
여성의 내로 바르며 제주해녀의 삶에서 우리들의 여성운동의 모방에 귀로
한것 같고 감동을 받았다.

2004년도에 향후 5주년을 맞이하는 여성한강연대로서 자부심으로 제주에서의
이 활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는 아내 우리도 같은 자부심을 지니며 한강의
정리방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다. 2004 연수회에서 여성한강인들이 이
런 의식을 갖도록 기대한다.